해병대캠프 사고 불똥 … 전남 청소년 수련시설 '양극화'

방학캠프 "안전은 생명"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여파로 전남지역 청소년수련시설들이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병영·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시설들의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일부 수련시설은 아예 문을 닫았다.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수련시설들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와 지역 수련시설들에 따르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전남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주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병대 극기훈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해남 A수련시설은 최근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한 달이면 평균 6개팀 이상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해병대캠프였지만 태안사고 직후 7건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올해 하반기 운영을 포기한 것이다. A수련시설은 교육팀을 잠정 해체하고 홈페이지도 문을 닫았다.

레프팅과 유격 체험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B수련시설도 답답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학교단위 단체 수련활동이 4건 예약됐지만 교육당국의 점검 지시로 예약 취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섬진강 레프팅 등 수상레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곡성의 C수련시설은 최근 4건의 예약이 취소됐고, 완도의 D수련시설은 해상체험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해상체험이 연상되는 지명 탓에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병영·해양·수상 등 극기훈련 프로그램 줄줄이 예약 취소

전남도·교육청 직영 체험 프로그램엔 예약 밀려들어 '북적'

전남의 한 수련시설 관계자는 "태안 사고 이후 병영체험이나 수상 훈련 등 극기훈련 프로그램의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며 "지난 수년간 사고 없이 운영한데다 최근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예약 취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지자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수련시설은 만원이다.

올해부터 전남도에서 직영하는 전남청소년수련원은 태안 사고 이후 예약이 밀려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이 꽉 찼다.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월출·유달·백운 학생야영장과 송호·지리산·나로도 학생수련장 등 6곳도 북적이고 있다. 특히 해남 송호학생수련장은 뗏목만들기·보트타기 등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예약 취소 없이 인기다.

전남도교육청이 직영하는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이어서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올해 해병대캠프를 이용하려 했던 학교 3~4곳에서 예약 문의가 왔고 실제 예약한 곳도 있다"며 "아무래도 지자체가 직영하다보니 운영 프로그램에도 신뢰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은 참여인원 수용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학생들의 야외 수련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우리가 만든 양초 예쁘죠"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지난 31일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양초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 양초는 광주 대인 야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수익금은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에 쓰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윤석 사무총장 곧 소환

광주지검,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조작 수사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공문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치위원회 팀장을 소환한 가운데 점차 고위관계자로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한 뒤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지난 30일 유치위 배모 마케팅팀장을 소환해 정부보증서 조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마케팅팀은 정부 보증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조사를 받은 광주시 6급 공무원이 소속된 곳으로 유치 활동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배 팀장을 상대로 마케팅팀 차원에서 정부 보증서 조작 사실이 공유됐는지, 체육진흥과 등 광주시 관련 부서에 사전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음주측정 채혈검사 요구? …실수하셨네요!"

호흡보다 음주수치 높게나와 벌금 700만원 낸 30대 '후회'

김모(38)씨는 지난해 휴가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3시 10분께 여수시 웅천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5㎞가량 떨어진 돌산읍 우두리 치안센터 앞에서 적발됐다.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수치는 0.214%였다.

음주운전을 한 김씨는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 김씨는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지만, 채혈 검사를 통해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96%로 오히려 높아진 것.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검찰 구형 기준에 따라 김씨는 벌금만 더 받게 됐다. 김씨는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지법 본원이 심리한 1, 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 수치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채혈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수치가 높아져 벌금만 늘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보다는 혈액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음주단속 밤낮 안가리고 계속하겠다"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된다는)분위기를 제압할 때까지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대낮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에도 도로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청장은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 '몇년간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못봤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기동대와 의경중대를 투입해 당분간 주간 음주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폭염 시간대에는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원참 〈8860〉 김종두

8·15특사 출소 앞둔 재소자 모텔서 놀다 복귀시간 어겨

목포경찰은 지난 31일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응을 위해 휴가 나갔다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소자 김모(2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선 경찰은 목포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다음 달 8·15 특사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응 휴가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승차거부?" 소주병으로 택시 유리창 깨

쌍나팔

○…영업을 끝낸 택시 기사가 태워주지 않는다며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차 유리창을 깨트린 40대가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4)씨는 이날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J한방병원 앞길에서 나모(48)씨가 몰던 택시 조수석 뒷유리창을 소주병으로 내려쳐 깨부쉈다는 것.

○…술이 깬 정씨는 "소주를 마시며 집으로 가는 길에 내 앞에 선 택시가 마감시간이라며 태워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승차를 거부하는 줄 알고 순간 화가 났다"며 뒤늦게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유치원 '숙박 캠프' 자제"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에 숙박형이나 먼 곳에서의 체험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현장체험활동을 할 때 적용할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유치원에는 현장체험활동 장소를 정할 때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과 숙박 체험을 지양하고, 위탁 프로그램 형태의 활동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현장체험 장소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승·하차 관련 동승자가 안전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양 철판공장 폭발사고 근로자 2명 3도화상 중태

지난 31일 오후 4시30분께 광양시 옥곡면 M 철판가공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공장 내 용광로 인근에 있던 근로자 김모(34)씨와 박모(35)씨 등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티타늄 원료의 용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현장 근로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